■광주경찰청 현장 증거 분석실

과학수사로 '숨겨진 증거' 찾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들이 19일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에서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섬유재질을 분석한 뒤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모든 범죄현장엔 범인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최첨단 과학 수사장비를 통해 100% 범인 검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수사 장비 수십종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지방경찰청 다기능 현장증거 분석실(Police Crime Lab). 분석실에는 과학수사요원 2명이 고배율 현미경을 통해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섬유와 토양 등 미세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용의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에서 섬유와 토양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 분석을 통해 옷의 출처와 용의자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장증거분석실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범죄현장수사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범행 현장에서 증거물을 가져와도 분석할 장비가 없어 대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 10일 문을 이곳에는 족적 검색 시스템을 비롯한 CCTV 분석기·디지털 실체현미경·일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하는 복합가스 측정기·고온 건조기 등 수십 여종의 최첨단 수사장비가 갖춰져 있다.

범죄 흔적 분석 또 분석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김두환(50) 과학수사계장은 "분석실 입구 벽면에 쓰인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모든 범죄는 '접촉'에서 시작하고 '접촉'에서 끝난다"며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분류 및 분석·감정해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국판 CSI로 불리는 분석실엔 김계장을 비롯한 최면요법 전문가·사체검시관·화재감식 등 과학수사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엔 외부에서 특채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100명을 풀어 주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수사원칙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과학수사대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었지만, 세밀한 사체 검안과 첨단 수사 장비를 통해 타살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살인범을 잡는 성과를 올렸다.

최면요법 전문가 등 포진

이 사건은 범죄현장의 중요성과 모든 범죄에는 '접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수사요원들에게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면요법 전문가인 염기회 경사는 "과거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감식반 형사 두세 명이 증거물 보관용 봉지를 들고나가는 게 고작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과학수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다"며 "범행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흔적'을 찾고 분석하는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은 과학수사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채직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신출귀몰 날치기'

광주 도심서 1시간 새 5건 잇따라

광주 도심에서 1시간여 만에 여성 5명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신출귀몰'한 날치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밤 8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50㏄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이모(여·25)씨의 현금 3만원과 신분증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이에 앞서 이날 밤 8시20분께에는 동구 산수동 S인테리어 앞길에서 이모(여·36)씨가 현금 5만원이 든 손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게 날치기 당했다.

또 이날 밤 8시18분께에는 북구 두암동 S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조모(여·42)씨가 오토바이를 탄 1명의 남성에게 현금 10만원 등이 담긴 손가방을 날치기당하는 등 1시간 사이에 광주 도심에서 5건의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170㎝의 키에 20~30대 보이는 남성이 스쿠터 종류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동종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주·이종행 기자 golee@

불 밝힌 갈치 낚시

'제6회 목포바다 은빛 갈치 축제'(10월 3일~4일)를 앞둔 지난 18일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강태공들이 수십 개의 낚싯대를 드리운 채 갈치낚시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TF 납품 비리 조영주 사장 체포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F 조영주 사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9일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사장은 최근 3~4년 간 특정 업체들을 KTF의 중계기 납품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사장이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다시 정치권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조 사장에 대해 배임 수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재균 의원 부인 구속

의장 선거 관련 '뒷돈' 받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의 부인이 기초의회 의장 후보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 의원의 부인 주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최운초(63·구속) 현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8천만원을, 선거에서 떨어진 김모(여·67) 북구의회 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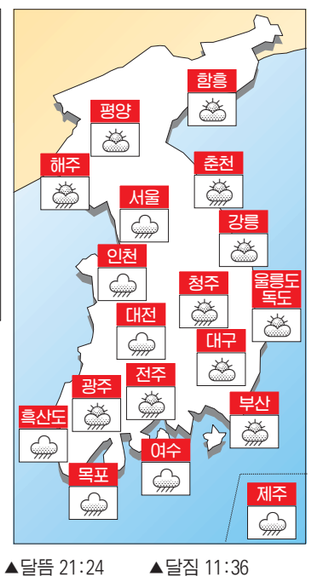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촉촉한 주말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9월 20일
(음 8월 21일)
◇전국날씨

광 주	차차 흐리고 비	21~30℃
목 포	차차 흐리고 비	21~28℃
여 수	차차 흐리고 비	22~28℃
완 도	차차 흐리고 비	21~30℃
구 례	차차 흐리고 비	19~30℃
해 남	차차 흐리고 비	19~30℃
장 흥	차차 흐리고 비	19~30℃
고 흥	차차 흐리고 비	18~29℃
순 천	차차 흐리고 비	19~30℃
영 광	차차 흐리고 비	19~29℃
진 도	차차 흐리고 비	19~29℃
전 주	차차 흐리고 비	20~30℃
남 원	차차 흐리고 비	18~29℃
흑산도	차차 흐리고 비	21~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05:01 17:49 썰물〈10:10 22:49
여 수 밀물〈12:14 05:33 썰물〈--:-- 17:10

▲해뜸 06:19 ▲해짐 18:32 ▲달뜸 21:24 ▲달짐 11: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날 씨						
최저/최고	20/29	20/30	20/39	19/30	19/29	18/28

'순천 도박 관련 살인 사건' 당일

"시청 과장 2명도 함께 도박했다"

경찰 정황 포착 수사 본인들은 극구 부인

지난 9일 순천에서 발생한 도박 관련 살인사건 당일 순천시 공무원들도 도박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은 "사건 당일 순천시청 K모·S모 과장 등 2명이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57)씨와 숨진 백모(59)씨 등과 함께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와 숨진 백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점당 500원짜리 도박판을 벌인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의 상습도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들에게 '도박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4천만원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 과장 등은 "사건 발생 3일 전에 도박장을 찾은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현장에 없었다"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10분께 순천시 J광고사에서 백씨 등과 도박을 한 뒤 인근 슈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백씨를 인근 S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술을 마시던 중 백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한나라 前 당직자와 짜고 수억 취업사기 2명 구속

제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선 50대 정치인과 짜고 수억원대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회사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 직원 이모(54)씨와 정모(48·무직)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였던 A(58)씨와 짜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초까지 '현대차 전주공장·남양유업·기아차 광주공장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구직자 정모(32)씨 등 14명으로부터 모두 6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말·휴일 비소식 늦더위는 못 식혀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소식은 있지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늦더위는 식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와 전남지역은 주말인 20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비는 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하지만, 낮 기온은 28~30도로 평년보다 4~5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늦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작년 성매매에 쓴 돈 14조원

지난해 전국 성매매 업소에서 거래된 돈이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4만 6천247곳으로, 2002년 6만 876곳에서 1만 4천여곳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 수도 32만9천여명에서 26만9천여명으로, 성매수 남성도 1억6천884만명에서 9천395만명으로 줄었다. 거래액수도 같은 기간 24조1천163억원에서 14조950억원으로 10조원 가량 준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유흥주점이나 간이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이용업소, 휴게텔 등 8개 업종의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은 2002년 26%에서 지난해 21.4%로 다소 줄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39개 집결지와 3천605곳의 겸업형 성매매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광주경찰 기동대 첫 투입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광주경찰이 처음으로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 1명을 적발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용원 업주 정모(여·47)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초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박모(25)씨를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재소자끼리 싸워 감옥살이 두달 늘어

쌍나팔

○…같은 방을 쓰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설거지 당번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가 감옥생활만 2개월 더 추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9일 수감중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와 김모(26)·진모(28)씨 등 3명의 광주교도소 재소자에 대해 각각 징역 2월씩을 선고.

○…양 판사는 "김씨 등 2명은 '1주일에 한 번만 설거지를 도와 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과민 반응해 이씨를 때린 잘못이 있고 이씨 역시 먼저 싸움을 벌인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했고 모두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교도소 생활을 2개월만 연장한다"고 판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은 지난 4월 설거지 당번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김씨 등이 "우리는 건달인데 왜 건드리냐?"며 나이 든 이씨를 무시하자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